

'98년 제2회 여성누리제 프로그램이 참 궁금하네요!!

9/21(월) ~ 9/23(수)

인터넷과 여성-인터넷! 여성도 한다며 한다.

강사: 정보연, SING 주현숙
장소: 자연과학관 8208
시간: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9월 22일 화요일

영화속의 여성-영화속에 비춰진
여성들의 모습 보기

강사: 영화평론가 유지나 교수님
장소: 자연과학관 8104
시간: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9월 23일 수요일

여고수업과의 간담회
- 강의실 밖에서의 여고수업은 어떤가

교수님: 환경공학부 김희경 교수님 외 4명
장소: 학생회관 2층 여학생 휴게실
시간: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9월 22일 화요일--개막제

여성주의 출판 기관의 공연

개막선언

여성 발언대

어떤 여자 마임공연

시상식

장소: 학생회관 앞
시간: 오후 12시 30분

9월 24일 목요일---폐막제

여성노래한마당

RAH의 축하공연

시상식

페미니스트 락 밴드 '마코' 공연

장소: 학생회관 앞
시간: 오후 5시 30분

우리의 한 번 웃자!

억압과 소외를 이겨내자

그리고, 한 판 놀자!

2회 여성누리제



우리의 한 번 웃자! 억압과 소외를 이겨내자 그리고, 한 판 놀자!

멀리서/가까이 채워지는 공간 14대 총여학생회

1998. 9. 21(월) - 9. 24(목)

멀리서/가까이 채워지는 공간 14대 총여학생회



깨끗함이 비밀이요?

유한킴벌리

커버가 다른 화이트에 있어요!

순간에 썩! 흡수하고



3중 쾌속흡수커버

꼼꼼하게 누벼서 들뜨는 것도 막아주는 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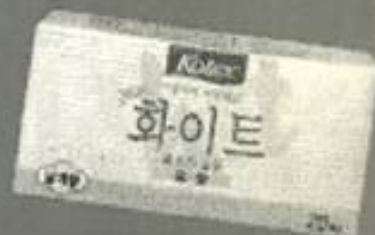
육각무늬 스티치

기분까지 깨끗하게!



숨쉬는 겉커버

“화이트는 깨끗함이 달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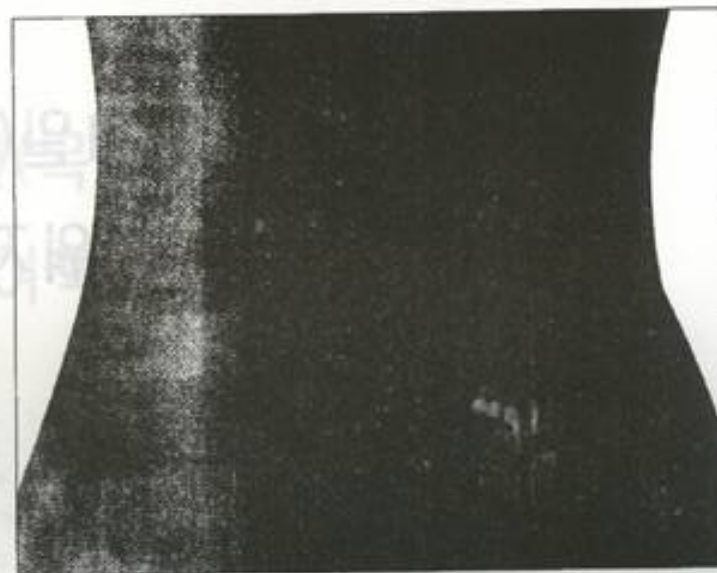


Kotex
화이트

결국 BYC 신한마트매장에서도 화이트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획 광고

가로형인가, 세로형인가?



“내 배꼽은 어떤 모양일까?”

배꼽을 한번 거울 앞에서 자세히 본 적이 있으세요?

제 아무리 세로형의 예쁜 배꼽이라도 허리와 배에 체지방이 많이 쌓이면 두꺼운 주름과 함께 가로형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체지방!

여자의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원인이 바로 이 체지방입니다.

여자의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원인이 바로 이러한 광고입니다!!

우리민족 웃자! 억압과 소외를 이겨내고, 인간 놀자!

“ 2 회 여성

1998년 9월 21일(월)부터
멀리서/ 가까이 채워지는 공간

2회 여성 누리제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지난 여름부터 여성누리제를 준비해왔다.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여성문제와 여성들의 문화를 접목시킬까?

어쨌든 가장 중요하다고 결정된 것은 우리 시대 여/학/생들에게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 여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여성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여성들이 즐겁고 행복함을 만끽할 수 있는.....

9월 21-24일 단 4동안만이라도 여성으로서 정말로 기분 좋은 날이 됐으면 한다 !!!

참 그리구, 총여학생회 자봉단 “지피기”는 여성운동의 불을 지피자는 멋진 의미로 만든 이름이다.

여러분들도 다음에 꼭 지피기가 되어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14대 총여학생회

2 회 여성 누리제

누리제 ”

9월 24일(목)까지
14대 총여학생회

우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

여대생, 참으로 매력적인 집단이다. 그들은 예쁘고, 지적이고, 심심하다. 같은 여성들에게는 가히 질투와 선망의 대상이고, 남성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집단이다.

그러나, 대학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자라는 이유로, 때로는 너무나 뚜렷하게, 때로는 아주 미묘하게, 차별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떡하란 말인가. 우리는 이미 여자로 태어난 것을, 여자로 살아가야 하는 건 우리가 선택하지 못했듯이, 이 차별을 극복해야만 한다는 것도 우리에게선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여대생들은 대학 문을 나서는 순간에 느낄 여성문제-고용에서의 성차별-에 대해서만 걱정해도 된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집단은 여대생이기 때문이다. 여자가기 때문에 안된다는 사회에 대고, 잘할 수 있다고, 그리고 잘하기 위해서 소리치고, 싸우고, 설득하고, 애원해야 한다. 그것이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요, 한국 사회를 진보시키는 길이다.

소리치고, 싸우고, 설득하고, 애원해야 한다는 것, 우아함과 거리가 멀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보면, 우리도 우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리라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이번 뜨거운 가을 햇살 속에서 총여학생회에서 준비하는 2회 여성누리제가 여대생들에게 새로운 기쁨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환경공학부 김희정 교수님

우리민족 웃자! 억압과 소외를 이겨내고, 인간 놀자!

웃고, 뒤집고, 노는 데 함께한 이들.....

기획팀장

새침(회계,95,이려화)

각 project팀

*인터넷과 여성

북주(철학,97,박경미)
신남(철학,97,노영민)
유희(철학,97,박유희)

*영화속의 여성

싱글(전산통계,97,외국주)
허그(전산통계,97,황지원)

*여교수 간담회

리아(행정,95,김미선)
만이(화공,97,배진희)
송아지(환원,98,최선하)

*개폐박제 팀

뱃살(환원,98,정소연)
그린파파야(환원,98,장보배)
태곤스(전자전기,98,김태곤)

*선전,편집,홍보

수영(화공,95,이수영)
신나(조경,95,전미선)
치와와(조경,95,장윤희)
새학시(경제,98,이승연)
빨강머리(환원,98,고홍경)

*thanks to

여동연 식구들
김희경 교수님의
정보연대 주함께
동남대 연영희 유하나 교수
여성주의 춤꾼 가관
마임이스트 고재경
페미니스트 박도희
그외 2500여학생 그리고 7000시대인
유한킴벌리



영화 속의 여성



준비한 사람들 :
홍지원(전산통계 98)
이창주(정보통신부장)

영화는 사회의 거울이다. 그 거울은 현실 자체를 그대로 비추는 다기보다 영화를 만든 제작진의 의식과 무의식을 비춘다. 그래서 인지 이 거울 앞에서 새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대다수의 감독인 남성, 남성의 시선과 생각에 따라 꾸며진 성적 각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인 삶에서보다 영화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영화적 현실이 비참할 뿐이다.

그러나 여성 영화 평론가이신 유지나 교수님을 초청해 영화라는 대중매체 속에 가지각색의 이데올로기가 침윤되어있으며, 그러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영화 내용이 여성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의 삶보다도 더 병적인 영화적 현실에 대한 작금의 금할 수 없음을 유지나 교수님의 생각으로 언어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자.

일시 : 1998년 9월 22일 해질 5시

장소 : 자연과학관 8104 시청각실

누가 : 유지나교수님 (영화평론가 / 동국대 연극 영상학부)

2회 여성누리제

여성 발언대

여러분 혹시 토요일날 저녁에 기쁜우리 토요일(서울방송)중에서 '가슴을 펴라'라는 프로그램을 보신적이 있습니까?중학생들이 사춘기때 겪는 감정이나 성적,연애등에 대해 옥상에서 목터지게 소리치르는 것을?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이렇게 필요하지 않습니까?찌든 일상에서 그리고 20년동안 여성이기에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소외,억압당한것에 대해 총여학생회가 그 자리를 만듭니다.
그날 만이라도 속터지게 소리 질러 봅시다.

일시: 9월 22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 개막제 행사중에서
장소: 학생회관 앞 무대

지하철 내 성추행 마임



마임이스트 고재경

준비팀 : 뱃살(환경원예98)
만이(화학공97)

몸것으로 국경을 초월할 수 있다는 마임!

마임 연기자 고재경씨의 공연이 22일날 학생회관 앞 열린 마당에서 있을 것이다.

고재경씨는 87년 마임극 '카스파르'로 데뷔한 이래 마임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 해온 연기자로 TV를 통해 잘 알려진 중견 배우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하철 내 성추행을 소재로 한 '어떤 여자'와 여성의 구속과 해방을 나비와 인형에 빗대어 표현한 '인형의 꿈'등이 보여질 것이다.

일시: 9월 22일 낮 12시 30분부터...

장소: 학생회관 앞 열린마당

공연 제목 : 어떤여자, 인형의 꿈

우리의 웃자! 억압과 소외를 이겨내고, 열린 놀자!

기획 광고

THAT

경고 : 흡연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남성들의 정자수를 감소시
켜 건강한 정자 생산을 해치므로 남
성들과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인터넷과 여성



1----- 강연 목적

지금의 시대는 정보화 사회라는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면서 좀더 많은 정보를 빨리 얻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뿌리 깊게 자리잡기 시작했다. 인터넷 사용자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도 이용자는 대부분 백인 남성이다. 그 원인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여성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발달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고 또한 그렇게 훈육받아 왔다는 것이다. 컴퓨터가 낯설은 것은 당연한 이유일 것이다. 남성들이 정보화사회의 화려한 미래를 그리는 동안 대다수의 여성들은 컴맹과 넷맹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들에게 정보화 사회는 오히려 접근하기 두려운 미래일 뿐이다. 남성들이 정보를 독점하는 한 21세기는 여성들에게 더 이상 정보화 사회가 아닌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남성들은 이제 첨단컴퓨터를 통하여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여성들은 거기에 종속당할 수 밖에 없다. 인류가 만들어 놓은 첨단 의 기계문명을 누가 어떻게 조종하느냐에 따라 풍요가 되기도 하고 무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자! 이제 선택의 길만이 남아 있다. 장악할 것인가? 정복당할 것인가?

2----- 강연 프로그램 내용

21일 :정보화 사회의 실체란?

:정보화 시대의 여성의 대응전략

:인터넷의 역사

:인터넷에서 할수 있는 것이란?

22일 :월드 와이드 웹(WWW)이란?

:어떻게 검색을 하나?

:신나는 인터넷의 바다로 서핑을 시작하자.

23일 :우리도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어 볼까요?

.....무진장 쉽지요!

3-----강연 일정

날짜: 9월 21, 22, 23일 (월, 화, 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장소: 자연 과학관 8208강의실 수강료: 3,000원

여교수 간담회

나도 교수님 만나러 간다., 여교수님!

1. 왜 우리는 만나야 하는가?

우리는 대학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교수님과 선배, 후배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만남 속에서, 시립대 여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만남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12분의 여교수님이 계시지만, 그분들과 만나서 여학생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해 본적이 거의 없습니다. 남학생과 달리 교수님을 찾아 뵈고 자신의 미래를 상담하는 것이 어려운 우리 여학생들. 강의실에서조차 소외받는 여학생들을 위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슬퍼하며 기뻐할 수 있는 여교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여교수님과 여학생들의 인간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그 작은 시작될 것입니다.

여학생들에게 멋진 역할 모델(role model)로 비추어지는 여교수님들. 그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 분들이 여러분께 하는 한마디와 칭찬과 지지는 2500의 여학생들의 어려운 현실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단지 여성이었기에 힘들었던 남성 위주의 대학 사회에서 이 자리를 통해 소외감을 훌훌 털어버리고 같은 여자이기에 가슴속에 담아 두었던 이야기를, 마음껏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 이 자리를 빌어 마음껏 얘기합시다.

2. 우리는 만나서 뭐해요?

@ 참가하시는 교수님 : 환경공학부 김희경 교수님 외 5분

@ 진행 순서- 0. 간담회를 마련한 이유에 대해서 / 우리 학교의 여교수 실태

1. 교수님이 되기까지 (5-10분 사이)

2. 교수님께서 우리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들

3. 같은 여성으로서 우리 여학생들에게 하고픈 말

4. 여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한 마디

5. 참가한 여학생들이 교수님께 질문하기

(내용의 흐름은 대화의 분위기에 맞추어서 진행 예정)

9월 23일(수) 5시 학생회관 2층
여학생 휴게실 「쉼터」

날만큼은 쉼터를 남학생에게도 개방합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 우리의 미래! 우리의 노력!

2000 여성노리제

페미니스트 밴드 마고

준비팀: 팻살(환경원예98), 만이(화학공97)



지난 3일 극장 '바너'에서 콘서트를 가졌 '마고'는 삼십할머니라는 어원에서처럼 생명을 주는 힘으로 음악이라는 틀 안에서 많은 이들의 아픔을 아우르는 노래를 만들고자 결성된 5인조 콰텟이다.

마고는 이제까지

- 97년 10월 - 여성유권자 한마당 공연
여성노동자 문화제 공연
인권문화제 공연
- 11월 - 전국 노동자 대회 공연
극장 마너 개관식 공연
- 12월 - 홍대앞 클럽 공연
- 98년 3월 - 서울대 신인생 환영회 공연
- 5월 - 인하대 공연
- 6월 - 동성애자 인권대회 초청공연
- 7월 - 여성의 전화 공연
- 마고의 신곡 발표 콘서트
- 8월, 9월 - 독립 예술제 공연
- 9월 - 민족극 한마당, 한국노총 공연, 대학 초청공연 예정

페미니스트 밴드 '마고'가 24일 학생회관 앞 열린마당에서 공연을 가질 것이다. '마고'는 지리산 등지에서 불리는 삼신 할머니를 뜻하는 말로, 밴드 '마고'는 그 어원처럼 생명을 주는 힘으로 음악이라는 틀 안에서 많은 이들의 아픔을 아우르는 노래를 만들고자 결성된 5인조 콰텟이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에서 활동해 온 유연이가 보컬을 맡고 있으며, 여성 노래와 환경 노래를 발표해 온 안혜경이 베이스를 맡은 것을 비롯해 드럼에 박이열, 건반에 김보연, 기타 설국환으로 구성되어 있다. 97년 결성된 이래 한국 노총 여성 노동자 문화제, 인권 문화제, 3.8여성대회 등에서 활발한 공연을 벌여왔다. 이번 '마고' 공연에서는 여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곡과 우리의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을 표현한 노래들이 불려질 것이다. 먼저 남성 중심 사회의 남아선호 사상을 빨간 고추밭에 빗대어 풍자한 '남자 셋 여자 둘', 먼 옛날 여인의 힘이 제대로 발현되었던 그 시대를 염원한다는 내용의 '오래된 미래', 우리 사회가 특히 여성들에게 강요하는 이데올로기를 풍자한 '커피 카피 아가씨', 성폭행 후의 아픔과 아픔 후의 성숙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쓴 곡 '백' 등의 노래가 2500 시대 여학우를 포함한 7000 시대인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 올 것이다.

일 시: 9월 24일 늦은 6시 (학생회관 앞 열린마당)

부들 곡: 남자셋 여자들, 오래된 미래, 나는 나, 커피 카피 아가씨,
백, 자기 선언, 아니야

2 외 여성누리제



새로운 춤을 추구하는 춤꾼들 「가관」 — 개막공연



1. 가관이란?

이화여대 무용학과 94학번 동기생 4명의 24살 동갑내기로, 왕눈이 조세진, 럭비공 허유미, 푸들머리 이지혜, 새댁 최은화. 그들은 졸업을 앞둔 지난 97년 7월에 독립을 선언했다.

기존 제도권 무용은 무용의 대중화를 실현시키려 노력하나 결국에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춤이 아닌 무용인들 사이에서 위상만을 높이는 것을 우선시한다. 그래서 현 무용계에 대한 이러한 틀을 깨고자 모였다.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그들은 언더라는 장소를 찾았으며, 무대와 관객사이의 벽을 깨고, 무용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도 거부감 없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춤을 만들고자 한다.

지난 8월 25일부터 시작된 대학로의 「98 독립예술제」에 참가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지난 10일자 경향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그들에게 있어 춤은 즐겁게 추면 되는 것, 무거운 춤, 엄숙한 춤, 품잡는 춤은 생리에 맞지 않다. 또한 여성들로만 뭉친 그들에게 여성문제는 짚질수 없는 고민들. 언제 어디서든 웃으며 출 수 있는 「우리만의 춤」을 그리며 비록 낮에는 아르바이트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연습이 힘들지라도 그들에게는 도전과 꿈이 있기에 행복하다.

2. 공연 제목 - 마녀의 춤(약 20분)

여성이 지닌 여러 가지 모습들을 연작으로 담았다. 남성 중심 문화에 대한 일종의 장난치기로 여성 특유의 감성과 억눌린 욕망을 코믹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공연 1 : 도너츠 만들기(가사 노동)
공연 2 : 숨겨진 마녀(여성만의 감성 세계)
공연 3 : 마녀 축제(한판 재미나게 놀아보자.)

9월 22일(화) 12시 30분
학생회관 앞

여성 노래 자랑

그룹속에서의 여성, 밴드속에서의 여성이 무대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겠조!
노리게 때 만큼은 함께 해요!!!

시간: 9월 24일 오후 5시 30분 (여학생만 참가 가능합니다)
장소: 학생회관 앞(폐막제 행사 중 하나)

2 회 여성누리제

★나는 나★ (98년 2회 여성누리제 주제가)
-세상사에 주체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곡
<작사:주연수, 작곡:박이엘>

내가 나일 수 없다면
차라리 사막 한가운데 날 버려
걸다가 지쳐 쓰러지는 것이
이 막막함보다 행복해

내가 나일 수 없다면
차라리 바다 한가운데 날 버려
해마다 지쳐 사라지는 것이
이 포기된 삶보다 행복해

지배하지마
강요하지마
날 포기시키려 하지마
더 이상 날 지우려 하지마
내가 나일 수 있게 내가 나일 수 있게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고추밭★

<작사,작곡-안혜경>
-남성중심의 사회,남아선호사상을
펼친 고추밭에 빗대어 풍자한 곡

남자셋 여자들 빨간고추 나라
고추밭에 들어오니 혼한 곳이 고추
이곳은 아름다운 빨간고추 나라
남자셋 여자들 빨간고추 나라
고추밭에 열린 조개는 딱 때어버려

내이름은 ★★★
어머니는 ★★★
위대한 어머니 당신 性은 전혀 필요없어요
우리가족 넷 중에서 어머니만 다른 性
너희 가족 열이라도 어머니만 다른 性
남자셋 여자들 빨간고추 나라

★벽★

<작사:주연수,작사:박이엘>
-성폭행의 아픔을 당당히 그린곡

눈을 떠보니
햇살은 아직 시리도록 눈이 부신데
젖어진 나의 육신은 어제를 지워버리고 뜬데

나의 절망은 어둠속 해매이네
낮선 눈동자들 날 어둠 속에 가두네
난 세상에 이방인이 아닌데

다시 산다면 세상이 아름다울까
돌이킬 수 없다면 난 잊어야 할까
분노로 찢기운 세상 나는

다시 일어나
가슴 가득 세상을 안아보자.
돌이킬 수 없어도 다시 하늘을 봐
절망만 하기엔 세상이 눈부서
살아갈 많은 날들 날 부르고 있어
세상에 이방인이 아냐

★커피카피 아가씨★

<작사,작곡:안혜경>
-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이 커피,커피 심부름
등을 시키는 사회의 남녀차별을 풍자한 곡

커피카피 커피카피 아가씨
자존심을 눌러라 커피카피 아가씨
친절해라 상냥해라 커피카피 아가씨
나서며 끝불건 커피카피 아가씨
사무실의 꽃으로 날아라

귀여운 여자가 되려면
사랑받는 여직원이 되려면
돌아서서 쓸개를 씹을 지연정
양순해라 웃어라

알아도 모르는 척 커피카피 아가씨
백치미 넘치게 커피카피 아가씨
독독하면 끝불건 커피카피 아가씨
사무실의 꽃으로 날아라잘못된 계산식

우리만의 옷자! 여들과 우회를 나누고, 연인 놀자!

서울시립대학교 성폭력 예방·대책 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 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대학 내에서의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성폭력사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에 "서울시립대학교 성폭력 예방·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성폭력의 의미)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란 범죄행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심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심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모든 언행을 뜻한다.

제4조 (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본교에 재직중인 모든 교수와 교직원 및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성폭력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 변화는 이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교수 중에서, 그 밖의 위원은 본교 교수, 교직원 또는 관계전문가 및 학생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단, 학생위원은 2인으로 하되, 총학생회의 추천을 통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전문적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는 1인의 간사를 두며 학생생활연구소의 상근조교로 한다.

⑥ 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성폭력사건에 연루된 경우 총장이 정하는 임시위원으로 대체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성폭력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2. 성폭력과 관련된 제반 대책의 수립 및 개선 방향 정립
3. 성폭력 사건의 처리 방안 연구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두 분장의 출석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연 2회 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성폭력사건이 신고되어 상담소에서 조사 후 위원장에게 보고가 된 경우 3일 이내에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전체위원 4분의 3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가위원의 서명을 받아 학생생활연구소 산하의 여학생상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성폭력사건의 처리) ① 성폭력 피해자는 학생생활연구소 산하의 여학생상담실에 성폭력사건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또는 여학생상담실의 상근조교는 신고된 성폭력사건에 관한 진상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성폭력사건의 조사방법·과정·처리에 대해서는 시정세책을 따로 둔다.

④ 위원회는 보고된 성폭력사건을 심의하여 그 처리방법을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성폭력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법적 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필요한 조치
2.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 또는 필요한 조치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 대한 사과, 교육, 봉사, 배상 등의 권고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제9조 (비밀의 준수) 성폭력사건의 처리에 관여한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알려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등) 대학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모적)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②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오늘은 왠지 두근거워

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따뜻한 차 한잔의 여유를 갖고 싶은 분!

성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

망설이지 말고 지금 곧 전화 주세요.

상담원 : 한국 성폭력 상담소 전문 상담원 이희숙 선생
님

상담시간 : 매주 금요일 이른 10시

상담실 : 문리학과 1층 여학생 상담실

☎ 210 - 2291

남학생이라고 예외는 아니겠죠?

여학생 상담실은 시립대 올바른 성문화 조성에 앞장섭니다.

여학생 상담실

98년도 총여학생회 비디오방 비디오 추가 테이프 목록

*크루서블 -1997 주연/다니엘 레이루이스,워노나 라이더 감독/니콜라스 하이프너

*코르셋 -1996 주연/이혜은,이정영,김승우 감독/정병각

*인형의 집으로 오세요 -1997 주연/헤더 마르쥔,에릭 감독/토드 솔론즈

*돈크라이 마미 -1998 주연/제니퍼 제이슨 리 감독/안젤리카 휴스턴

*셋 잇 오프 -1997 주연/제이다 핀켓 감독/게리 그레이

*내 안의 남자 -1998 주연/아누크 그랑베르 감독/베르트랑 불리에

*바그다드 카페 -1993 주연/마리안네 제게 브레히트 감독/페시 아드롱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1996 주연/이용경,김의성 감독/홍상수

*나의 장미빛 인생 -1998 주연/조르 뒤 주 프레스 감독/?

*산부인과 -1997 주연/황신혜,방은진 감독/박철수

*바운드 -1997 주연/지나 거슨 감독/래리 앤디

*창 -1997 주연/신은경,정경순 감독/임권택

*에어리언 4 -1998 주연/워노나 라이더 감독/장 피에르 주네

*에로미프 -여성 감독이 만든 하드코어 포르노

